



여덟번째 이야기

단절과 멈춤의 시간

출근시간과 조금 겹친 이른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운이 좋았습니다. 차가 별로 안 막혀서 인터뷰가 예정된 마포의 한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30분이나 먼저 도착했습니다. 따로 할 일도 없어, 사진 잘 나올 만한 자리를 찾아보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10분 뒤. 백발의 중년 신사 한 분이 커피숍에 들어셨습니다. 내부를 쭉~욱 돌아보시며, 이 자리 저 자리에 직접 앉았다, 일어났다, 창밖을 보다를 반복하셨습니다. 마치 인터뷰를 앞두고 사진 촬영까지 사전 점검 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바로 옆-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혹시나 싶어 ‘그 분’이신지 여쭙었습니다. ‘그 분’이셨습니다. 차(茶)를 뭘로 하시겠느냐 여쭙니, 모두 오면 같이 주문하겠다셨습니다. 먼저 커피잔을 받아두었던 ‘1인’은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으흠~;;) 그는 사진이 잘 나오는 자리에 앉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별도 잘 들어오고, 창밖도 잘 보이는 자리를, 저희에게 주려고 좌석을 고르고 고르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서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고, 그는 저희를 위해 창을 등지고 앉아 계셨습니다. 후훗. **‘BEE 오는 수요일’ 여덟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BEE 코리아의 썹크 탱크’ 조대식 장로님입니다. ^^**



다른 일행이 도착하기 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장로님은 역시 준비해오신 듯 싶은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 캐나다 대사님이신 그의 명함은 보통 국가공무원의 그것 보다 화려했습니다. 빨간 넥타이에 녹색 드레스 셔츠, 왼손엔 태극기가 새겨진 서류가방을 들고, 오른손엔 펜을 쥐고 뛰는 모습의 캐리커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한 눈에 해독하기 어려운 ‘중국어 글자’ 대신 읽기 쉬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한글로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소 보수적이고 격식을 따지는 ‘외교가(街)’에서 이것을 사용하시는지 여쭙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명함을 건네신다셨습니다. (참고로 장로님께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서는 국가가 정한 양식에 따른 명함을 사용하십니다. ^^) 때마침 한숙영 권사님과 조정문 집사님이 커피숍에 도착하셨습니다. 현직 대사와 전직 기자 사이의 첫 만남이 연출하는 어색함이 멈추고, 한 권사님과 조 장로님의 친숙한 동역자 토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장로님께서 커피에 입을 대셨고, 손수 골라오신 빵과 케익이 드디어 장로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는 ‘비업무용’ 멘트를 입 밖으로 내셨습니다. “바깥에 있다 들어오면, 이런 게 땡겨요. 크림빵 곰보빵 단팥빵 뭐 이런거요...”

먼저 근황과 기도 제목을 여쭙었습니다. **“frustration & sadness (좌절과 슬픔). 캐나다에 5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느끼게 된 게 그 거예요.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과정, 그 끝에 있는 느낌이라까. 12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200명의 선교사를 보내준 나라인데 말이죠. 상징적인 풍경이 기억에 남아요. 토론토는 120년 전에 (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기독교 신앙의 센터였어요. 선교사들을 위해 모금해주던 교회가 많아, 시내에 ‘처치 스트리트’(Church Street)라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게이 스트리트’(Gay Street)로 바뀌었어요. 거리 곳곳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습니다. 선교의 상징이 동성애의 상징이 된 겁니다. 얼마전 서울에 돌아와 보니 그와 또 다른 의미에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혼란과 불안이 느껴집니다. 아마 지금의 전 세계를 관통하는 분위기일 겁니다.”** 캐리커처 명함을 들고 설명할 때는 마치 10대 소년 같던 모습이, 전 세계적인 혼돈과 슬픔에 대한 기도제목을 말씀 하실 땐, 경력 33년차 베테랑 외교관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church 없는 church street’**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 같은 게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오신 분이실까. “처음 집사람 만났을 때 유일한 조건이 ‘교회만 안가면 좋겠다’였어요. 당시는 크리스천들을 위선적이다 여겼던 거 같아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내가 캐나다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고, 이어서 나도 (주님을) 만나게 됐죠. 1993년 1월13일 새벽 5시에 세례를 받았어요. 수요일이었죠. 세례 받고 세시간 뒤에 공항으로 갔습니다. 또렷이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영하 48도이던 캐나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시간 뒤에 오만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곳에 도착하니 영상 50도였어요. 거의 섭씨 100도의 일교차가 난거죠. 하하,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향 과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2년 전부터 세례를 권유하셨는데 거부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에 대한 ‘예’가 세례인건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캐나다 떠나기 며칠 전에 ‘제자들’이란 독일작가의 책을 통해 ‘니가 찾던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 뒤론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거구요. 그 전까지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었습니다.”

그가 2002년 북한 업무를 맡았을 때, 북한 선교에 뜻을 두고 계셨던 고(故) 김사무엘 목사님을 만나면서 BEE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나자 마자 ‘딱 내가 원했던 그것’이었던 BEE를 품게된 그는 ‘명품 선교 단체’라는 개념을 처음 구상하면서, 이후 BEE의 로드맵을 만들어온 장본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개 문화권, 5개 대륙, 7개국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기독교의 진지(캐나다)도 보여주시고, 무너진 이슬람의 진지(리비아)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통일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통일시대가 되면,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될 것 또한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가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중에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가 키워온 것이 바로 선교 그리고 BEE 같은 선교 인프라입니다. 특히 **BEE는 말씀이라는 최고의 원천 기술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적으로 돌아가려면 GE 같은 뛰어난 관계사가 필요한 것 처럼, BEE가 한국 교회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BEE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온누리가 한국 교회를 끌고, 한국 교회가 한국사회를 끌고, 이어 세계 교회를 끌고 해서, 지구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EE의 비전 이야기가 터져 나오자, 장로님의 이야기는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진지한 톤으로, 좀 더 열정적인 에너지로 BEE를 향한 당부의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BEE 코리아가 국내 사역의 외형적 부침에 너무 영향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신 20주년이 됐을 때 두달 동안 리뷰하는 세션을 했던 것 처럼, 1년에 한번씩은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근원적인 것들, 우리가 뭘하는 사람들인지 등의 펀더멘털(근본적인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열매 보다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 대해 고민



해야 우리의 ‘원천 기술’을 지속가능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마트폰을 끄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듯이, 단절과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BEE는 마치 최종병기와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혼돈과 불안이 키워드인 만큼, 지구촌 사람들에게 절실한 게 Solid Rock(흔들리지 않는 바위)이자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걸 초석으로 삼고, 기둥으로 가지고 있어서 BEE가 버티는 건데, 행여 세상 유행을 따라가느라 중심이 흔들리면 안된다 싶습니다. 모든 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추의 역할을, 앵커의 역할을 (BEE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후끈 달아오른 진지한 열기를 살짝 식히고, 그의 캐주얼한 면도 확인할 겸, 결혼 얘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곧바로 “그런 얘기 할 시간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몇초 후, 초면에 너무 쌀쌀맞게 답했다 싶으셨는지, 바로 표정을 바꿔 이전 보다는 조금 더 길게 얘기를 보태주셨습니다. (^^) “만나고 3개월만에 결혼했어요. 보고 바로 이 사람이구나 했어요. 작년에 결혼 30주년이었는데, 처음 만나 좋았던 게 아직도 계속 좋다는 게 참 신기해요. 제가 비정상이다 싶기도 하고...” 괜히 물어봤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BEE 에서 결혼얘기는 ‘조커’가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BEE오는 수요일’ 3호의 주인공 윤현덕 장로님도 생각나고... 앞으로 딱 한 분께만 더 사용해 보고, 계속 이렇게 재미 없다면(^^), ‘BEE오는 수요일’ 에선 연애 얘기를 뺄까 싶습니다. (쩍 ;;;) 끝으로 좋아

하는 성경 구절을 여쭙었습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낳고, 낳고’ 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성경엔 낳고, 낳고가 다예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이루었고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저는 아들 둘을 낳았으니까, 일단 미션 완수구나 싶고...세상 속에서 성공을 하고 족적을 남겨야 된다는 야망, 욕심에 눌러 있던 때에, 위로와 평안을 준 구절이에요.”

(글: 최승호, 사진: 조정문, 편집: 최지영)

조대식 장로님은...

57년 1월 15일생. 미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석사. 외시 18회. 1984년부터 지금까지 오만, 리비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7개국을 거치며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활약 중. 총 여덟개에 이르는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매일 신구약 한 페이지씩을 읽는 것이 그의 큐티라 했습니다. 각 번역마다 다른 시각을 읽으며 말씀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게 장점이라고. 아내 박은영 집사님과 사이에 미국에서 직장생활 중인 두 아들 상규, 현규를 두고 있습니다.



BEE 소식

1. Q국에서 DPM 졸업식이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졸업생들이 계속 후속 훈련을 받을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21명의 BEE 가족이 16일 터키로 아웃리치 떠났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아웃리치 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